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대림절 둘째 주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0-23)

다음 주일 2024년 섬김위원 임명

17일(주일) 1, 2, 3부 예배 시간

다음 주일 12월 17일 1, 2, 3부 예배 시간에 2024년 섬김위원을 임명합니다.

3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교구총회가 열리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성탄절기 감사찬양

을 할렐루야찬양대(대장:차도훈 장로)가 담당합니다. 지휘에 최유현 집사, 오르간 차주연 권사, 피아노 김양언 집사, 팀파니 윤주일 안수집사가 수고합니다.

연말연시 일정표

- 12월 17일(주일) - 2024 섬김위원임명
- 새가족환영회
- 각부서 총회
- 성탄절기 감사찬양 (찬양예배 시, 할렐루야찬양대)
- 12월 24일(주일) - 성탄축하 특별행사 (찬양예배 시, 교회학교)
- 12월 25일(월) - 성탄새벽예배 (오전 5시, 베들레헴찬양대)
- 성탄축하예배 (오전 11시, 할렐루야찬양대)
- 12월 27일(수) - 예결산 당회
- 12월 31일(주일) - 각 부 교회학교 졸업
- 향존직 은퇴
- 장한 어머니상 (다자녀, 개근자녀) 시상
- 성경통독 시상
- 예·결산 특별제직회 (찬양예배 후)
- 송년음악회
- 송구영신예배 (23시 30분, 임마누엘찬양대)
- 1월 7일(주일) - 신년주일 성찬예배 (주일 1, 2, 3부 예배 시)
- 예결산 공동의회 (찬양예배 후)

사라전도회 속회

오늘 2부 예배 후 웨민홀에서

사라전도회(회장:이영희 권사)는 오늘 2부 예배 후 웨민홀에서 속회를 가집니다.

속회에서 2023년 회계 결산과 신규 회장단이 교체되며 임역원과 새해 예산안 인준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여전도회의 막연니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주신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라전도회에서는 연말 결산을 하며 멕시코 태풍 재난 구호금으로 100만원을 쾌척하였고, 12월 25일(월) 성탄예배 시 온 교인에게 성탄빵을 선물합니다.

리브가전도회 속회

오늘 3부 예배 후 502호에서

리브가전도회(회장:허숙 권사)는 오늘 3부 예배 후 502호에서 속회를 가지며 2023년 회계 결산과 신규 회장단 교체, 임역원과 새해 예산안 인준을 합니다. 리브가전도회는 올 한 해 70인전도대와 함께 하는 노방전도에 특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전도위원회의 각종 행사를 섬겼습니다. 리브가전도회는 연말 결산을 하며 멕시코 태풍 재난을 위한 구호금으로 100만원, 필리핀 단기선교에 7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한나전도회 속회

오늘 3부 예배 후 603호

한나전도회(회장:김서윤 권사)는 오늘 3부 예배 후 603호에서 속회로 모이며 2023년 연말 결산과 신규 회장단 교체, 임역원과 새해 예산안 인준을 합니다.

한나전도회는 연말 결산을 하며 30만원을 필리핀 단기선교에 후원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새가족환영회

17일(주일) 2부 예배 후 802호

새가족부(부장:노제현 장로)에서는 12월 17일 주일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료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수료자들이 서울교회에서 은혜로운 교회생활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니

(창 26:12-22)



손달익 위임목사

신학자 몰트만은 일찍이 ‘희망의 신학’을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렁에 빠져 있던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음을 역설하면서 희망의 신학을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 독일 군으로 참전했던 그는 영국군에게 포로가 되어 스코틀랜드의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이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몰트만은 ‘스코틀랜드의 포로수용소에서 수렁에 빠져 있던 나의 영혼에 예수님이 찾아주셨다. 그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시기 위해 내 곁에

오셨고 내 희망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제의 해법도 예수 안에 있음을 말하면서 ‘예수는 희망이시다, 신앙은 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 희망의 신앙인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로 아버지 아브라함 사후 뒤를 이어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족의 생사를 책임진 자리에 섰습니다만 그의 행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창 26:1)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1. 희망의 근원 -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에 흉년이 찾아오자 유목민이었던 이삭의 가족은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생존을 위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배하던 그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해변 지역을 장악하고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그에게 거주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간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눈앞에 보였지만 이삭은 불가피하게 아비멜렉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태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과 함께 하실 것과 땅과 자손을 주시며 천하 만민에게 복의 씨앗이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2-4절) 그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고 평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막연한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희망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희망의 근거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넘어서기를 재촉한다’고 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희망의 사람들이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현대 과학은 매우 명석하게 현실을 진단하지만 희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엄청난, 이해 못 할 시련들이 다가와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신앙인은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이 존재하고 그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삭이 흉년과 피난과 이방인 왕에게 가족을 의탁하는 어려움에 처해도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않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2. 새로움에 도전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한 이삭은 이 낯선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12절).

원래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들을 소개할 때 ‘양과 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농사하는 것이나 목축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수렵시대에서 유목시대로 발전하고 유목에서 농경사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 산업사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때문에 유목민 문화와 농경사회 문화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고 유목민이 농사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큰 모험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새로움에 도전하여 성공했습니다.

그 해에 백배나 얻었다는 것은 매우 만족할 만한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합니다.(12, 13절) 농사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이삭이 믿음으로 한 것이지만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므로 가능했고, 하나님의 복 주심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이런 성공을 거둔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들의 우물을 빼앗고 메워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만행은 15절, 18절, 20절, 21절에서 네 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일에 물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물은 부족 공동체 전체의 생사를 가름하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얻기 위해 힘겹게 우물을 개발하면 따라다니면서 메꾸는 만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다 하였더라”(22절)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추격하면서 휘방하고 메꾸는 일을 반복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또다시 우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면 사람의 휘방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이삭이 농경문화 수용을 거부하고 과거의 답습만 고집했다면 그에게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도전에 숭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사람의 휘방은 문제 될 것 없다는 믿음으로 대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3. 평화를 누리다

브엘세바에 정착하여 번영을 누리던 이삭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일행이 평화협정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휘방해도 오히려 더 번성하고 복을 받는 그를 보고 아비멜렉 왕은 드디어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친은 아비멜렉의 진정한 반성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과거사를 문제 삼아 협상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흔쾌하게 수용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보는 것은 온유함, 비폭력, 관용과 포용 등의 품격 높은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그의 인격을 가능케 만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참된 영향력이며 그 지경을 넓히는 진정한 르호봇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거친 태도나 독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관용하심, 그의 거룩하신 희생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품격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의 아비멜렉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지경을 넓히시는 르호봇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서울교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승아 성도 (교구)

하나님을 알기 전 이성적 판단이 항상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나 이외에는 보이지 않았고, 자신감도 있어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많은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였고,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를 부르시고, 회개의 눈물을 받아 주시고 저를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주님은 저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죄에 뒤덮인 저에게 선물같이 회개하게 하셨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저는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늘 뒷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여쭙어 보지 않았습니. 그저 머릿속의 이득과 상황만 가득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웬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냥하고 친절할 걸모습은 갖추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이 깊은 우울증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직, 이사 후 서울교회 출석 전후 우울감을 떨치고자 했던 노력

들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뒷전이였음에도, 주님은 제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고, 저에게 쉼을 주시고 자 이 교회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시절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 자녀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부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희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시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지 못하고 연기 속에 휩싸여 있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4 필리핀 단기선교

선교적 삶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장윤기 안수집사 (청년부 부장)

작년 12월,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현종필 목사님께서 청년부에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선교(카이로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후반기에는 선교를 떠나고 싶다는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저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는 다르게 10여 명의 청년들이 주일 찬양예배 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4개월간 선교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청년들이 밤에 모여 공부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저녁을 섬겨주셨고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며 꼭 선교지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 후 우리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배운 것을 실천하



위) 카이로스 선교프로그램 수료식과 청년부원들 아래) 기도로 선교를 기획하는 청년리더들

에 어떤면 단기선교는 가장 청년적인 도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니 2016년 1월 미안마 단기선교 이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7년간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단기선교를 갑니다.

"선교적 삶"이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데 헌신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지로 가지 못할지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서울교회의 "만민에게 전도"하는 사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장소 : 필리핀 불라칸 바티아 (박종민·김선화 선교사)
- * 기간 : 2024. 2. 8(목)-2024. 2. 13(화) 5박 6일
- * 인원 : 단장 유충기장로외 17명

기 위한 선교 여행을 꿈꿨습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모범을 보이고 주도하고 기획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꾸던 차

(4면에 계속)

-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선교팀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 재정적인 문제로 하나님 일 하는데 망설이지 않게 해주세요.
- 선교지에 계시는 박종민·김선화 선교사님의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현지 교회의 청년 교사들과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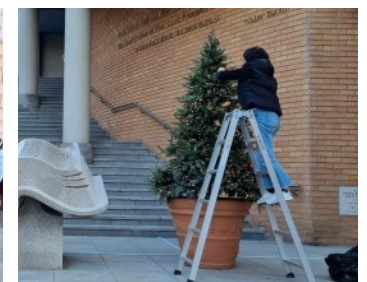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12월 6일(수) 대림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수요일 2부 예배 후에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은 우리 교회 디자인팀 (팀장:김금재 안수집사)중 디스플레이 파트인 김연화 권사, 유은경 집사, 남재은 집사, 노애리 집사, 조상희 집사, 송명원 집사와 오윤걸 장로님 및 교회 직원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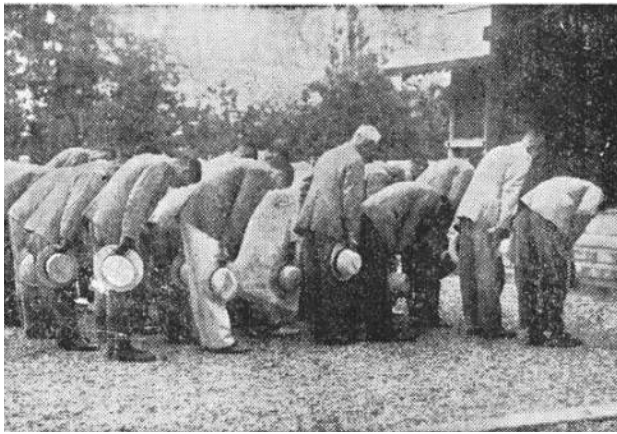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태평양전쟁과 기독교의 '종교보국(宗教報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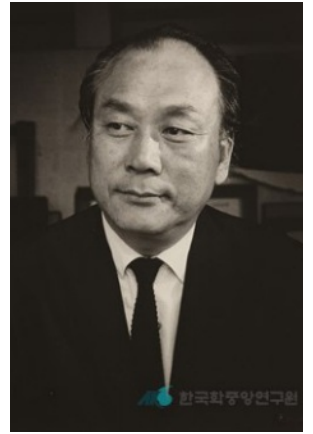
주기철 목사



제27회 총회 직후 평양신사에 참배하는 총회장 및 노회장 23인



윤하영



정인과

태평양전쟁은 2차 세계대전의 일부이다. 1937년 중화민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벌어진 중일전쟁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순식간에 확대되었다.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본 전쟁을 시작했다. 일제는 이 전쟁을 서방 세계로부터 아시아가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대동아전쟁이라고 불렀다. 이후 약 6개월 정도는 일본이 우세한 상황이 이어졌다. 일제는 홍콩, 광, 마닐라 등을 차례로 점령하며 그 세력을 넓혀나갔지만 전황은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연합군이 재정부 후 공세로 전환하면서 교착상태가 이어졌다. 일제는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만주를 공격하며 참전하자 항복을 선언하였다. 일제를 지원하던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은 이미 연합군에 항복한 상태였기에 태평양전쟁의 종료는 2차 세계대전의 종료이기도 했다.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의 시기 한국인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현재 아픈 역사로 기억하는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 강제징병 등이 모두 이 시기의 일이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 '육군 특별 지원병령'을 시행했고, 1943년에는 '육군 특별 지원병 임시 채용규칙'을 공포하고 어린 학생들까지 '학도 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투입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한국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 일제의 침략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장로회를 중심으로 이 과정을 살펴보자면 역시 출발은 신사참배의 결의였다. 1938년 제27회 장로회총회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애국적인 국가의식'이라며 신사참배를 숭선수범하여 수행하고 국민정신총동원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장로회의 모든 공식 행사에 신사참배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신양인들을 교회가 오히려 치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주기철 목사가 1939년 파면당하고 그가 시무하던 평양 산정현교회가 폐쇄된 것이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신사참배 거부하는 한국교회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고 이것이 무너지자 교회의 친일행각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기 시작했다.

1939년 제28회 총회에서 장로회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연맹'을 결성했다. 이사장에 윤하영 목사가, 총간사에 정인과 목사가 임명되었다. 이 연맹의 목적은 이른바 '종교보국(宗教報國)'에 있었다. 종교보국이란 일제가 추진한 총후보국(銃後報國) 정책의 한 갈래로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 후방에서도 물자 동원에 교회가 앞장선다는 뜻이었다. 이어 총회는 각 노회와 교회에 '애국반'을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적으로 조직된 애국반은 다양한 전쟁지원 활동을 벌이는 말단 조직이었다.

1940년의 제29회 총회에서 1937년부터 1939년까지의 전쟁 협력 통계가 보고되었다. 각 활동들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총계로 따지면 전승축하회 594회, 무운장구기도회 9,053회, 국방헌금 1,580,424원, 흥병금(恤兵金) 172,646원, 유기(鑰器) 헌납 308점, 시국강연 1,357회, 위문 181회, 위문대 1,580개, 애국반 731개, 애국반원 5,764명이 보고되었다. 보고자인 정인과 목사는 이상의 통계를 보고하며 장로회가 다른 종교나 교파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보였다면서 "이만하면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몹시 뿌듯했던 모양이다.

1940년 12월에는 전선(全鮮)장로회신도대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연맹을 해체하고 국민총력 조선예수교장로회연맹을 결성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교회의 사명은 정신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이 되었다. 1941년 4월에는 전선(全鮮)여신도대회가 열려 여성인력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총력연맹 여장부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들 역시 일제의 전쟁수행을 도왔다.

1942년 2월 일본 육해군에 비행기 한 대, 기관총 7대의 비용을 헌납하면서 전쟁 무기공급이 시작되었다. 9월에는 해군에 함상전투기, 11월에는 육군기를 헌납하였는데 그 이름이 '조선장로호'였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금속유기는 물론 교회 종이 공출되었고 1942년까지 1,540개의 교회 종이 공출되었다. 그럼에도 총회는 계속해서 아직 종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빨리 종을 바칠 것을 독촉하였다. 급기야 일제의 정책에 따라 교회들이 통폐합되기 시작했다. 교회들이 처분되었고 교회 매각금의 일부는 다시 일제에 국방헌금 명목으로 헌납되었다.

장로교회는 무기공급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당시 철도노선에 따른 5개조로 연사를 파견하여 '지방시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전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1942년 5월 11일에 서울 승동교회에서 '징병제 감사기독교신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일제 당국에 징병에 대한 감사문을 전달하고 "이 감격에 울지 않을 수 있을까. ... 황군(皇軍) 용사를 내 아들, 내 손자, 내 동생을 갖는 아버지도 조부도 형도 누나도 울어라. 울 수 있는 데까지 울어라. 울음을 그치거든 어떻게 이 감격에 답할까를 조용히 생각하라"는 성명을 채택했다.

간혹 친일 과거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친일하지 않고 당시 한반도에 살 수 없었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다. 하지만 교회의 친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천황제 이데올로기 자체가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에 해당했다. 그리고 '종교보국' 활동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없이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적극적이었고 능동적이었다. 한국장로교회는 신사참배와 관련해서는 죄책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교단들이 전쟁협력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결혼



- 3교구 이성형 성도·임지영 성도
(임광호 안수집사·김정미 권사 가정 장녀)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웨딩피에스타귀족 2층 피에스타홀

동정

- 그동안 고등부를 섬기던 김예지 전도사께서 사임하시고 전진석 전도사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식사 제공

- 4교구 문동진 안수집사 김은정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임마누엘찬양대
대원 모집**

주일 3부 열린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임마누엘찬양대에서 청장년 중심으로 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성도 누구나 환영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은 사무국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시상

교회는 성경통독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연말 성경통독 시상을 합니다. 성경통독을 마친 성도들은 교구 간 사나 다락방장을 통해 알려주시거나, 2층 본당 앞에 비치된 '성경통독 수거함'에 성경 읽기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한은 12월 24일(주일)까지 입니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12월11일	월	딤후 1-3, 몬		12월11일	월	고전 13-16	
12월12일	화	히 1-8		12월12일	화	고후 1-13	
12월13일	수	히 9-10		12월13일	수	갈 1-6	
12월14일	목	히 11-13		12월14일	목	엡 1-6, 빌 1-4	
12월15일	금	약 1-5		12월15일	금	골 1-4, 살전 1-5	
12월16일	토	벧전 1-5		12월16일	토	살후 1-3, 딤후 1-6	
12월17일	주일	벧후 1-3		12월17일	주일	딤후 1-4, 딤후 1-3, 몬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대림절 둘째 주간에 낮고 낮은 이땅에 사랑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2. 수축의 시대를 극복하고 복음의 확장에 쓰임받는 성령충만한 신앙공동체로 새로 빛나는 은혜를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에 내려 주시고, 선교현지에 성령의 격려로 함께하소서.
3.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보살펴 주시어,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 불의로 고통당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